



추석 가정예배 순서



개 식 사 **담 당 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찬 송 **570장** **다 같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 도 **담 당 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늘 말씀에 기억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크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사 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55:16-23** **담 당 자**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9.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20.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 씬 **짐을 맡기라** **담 당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기록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심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본성이 복수를 꿈꾸는 마음이 왜 없겠느냐는, 언제나 다윗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청원거림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깊이 토로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을 향한 확신, 악인들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집니다.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 보아도, 악한 이들의 악악함이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며 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완악하다 할지라도, 성도의 위안이자 소망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짐,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복수, 이해되지 않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흔들림, 또는 낙심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면서 지게 되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멀리 떠나는 비행기에 오른 승객이, 짐칸에 짐을 올려놓지 않고,
짐을 계속 매고 가는 것과 같다.

인생이라는 장거리 여행중에 크고작은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 송 435 장 다 같 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 이

'2023 추석 가정예배



가족과함께
행복한명절되세요

다함매수교장교회
거제소망교회
GEOJE SOHANG PRESBYTERIAN CHURCH